

# 한국전쟁 70 주년, 북한교회를 위한 기도

국제오픈도어 본부에서는 한국전쟁 70 주년에 맞추어 북한을 위한 “7 일 기도” 특집 패키지를 만들어 전세계 크리스천들과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난 역사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5 일에는 4 대째 내려오는 북한 성도의 강력한 간증을 소개하고, 6 일에는 북한 성도들을 섬기는 오픈도어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7 일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비밀 편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오픈도어 사역자의 인터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1~4 일까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은 요약 편집되었습니다)

## Day 1. 만수대 언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

### 평양이 생명의 책을 받다

19 세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도착하여 순교했습니다. 순교 직전에 그는 가지고 온 중국 성경 일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0 년 후 1890 년대 평양에 온 사무엘 모펏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받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국 초대 교회들 중 하나인 ‘넬다리골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넬다리골 교회는 18 개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907 년 부흥으로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 원산과 평양의 회개와 부흥운동

1903 년 북한의 동쪽 도시 원산의 한 작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서쪽 끝 평양까지 퍼져 ‘1907 년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이 있기까지는 수개월간 새벽기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를 시작으로 500 명 이상의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평양대부흥의 불길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나가 한국기독교의 새시대를 열었습니다.

### 일본 우상 신사참배 가결

평양대부흥 3 년 후인 1910 년, 한일합병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국권을 잃은 조선의 마을마다 일본은 신사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200 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당하고, 2000 명 이상의 성도가 투옥되었으며 기록된 수만 50 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1938 년 9 월 10 일, 한때 장대현 교회의 일부였던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지금 만수대 언덕은...

2 차 세계대전 끝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김일성 치하에서 '장대제 언덕'은 '만수대'로 개명되었습니다.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뜻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장대현 교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파괴되고 그 자리에는 2 개의 거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양 한가운데, 높이가 20 미터에 달합니다.

### 북한의 위한 기도 - 회개

한 오픈도어 사역자가 하나님께 "왜 북한을 버리셨나요?"라고 물으니 마치 하나님께서 "왜 북한은 나를 버렸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북한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북한땅이 고침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 Day 2.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

### 일본으로부터 해방, 그러나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다

1945 년 8 월 15 일, 일본이 패망하고, 이틀 후인 8 월 17 일 예수 이름으로 투옥되었던 성도들이 풀려나왔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했던 산정현 교회로 가서 한국교회의 재건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주둔하는 북한에 1945 년 10 월, 김일성이 등장해 소련의 도움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곧 북한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은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1 월에는 용암포제일교회가 농부와 노동자들의 공격을 받아 장로 1 명이 순교하고 교회건물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일로 신의주에서 약 5000 명의 주로 크리스천 학생들이 공산주의 반대 시위를 하였으나 소련군에 의해 사살되고 체포되었습니다. 다음해 1946 년 11 월 공산당이 주일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자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하며 보이콧을 했고, 체포와 투옥을 당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통제와 억압을 당했습니다. 주일에 모임과 강연을 열어 불참하는 크리스천들은 소환되어 자아비판을 해야 했고, 기독교 학교들은 폐교되거나 운영권을 빼앗겼습니다. 강제로 노동당에 입당해야 하고 거부하면 체포를 당하거나 시베리아와 같이 외딴 곳으로 추방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더 통제하기 쉽도록 큰 교회에 통폐합되었습니다. 예배당에 김일성 사진을 걸어

놓을 것을 명령했고, 거부는 체포와 고문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195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 북한을 위한 기도 – 지하로 들어간 교회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북한의 지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습니다. 다음세대로 복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시기를,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기를,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이들이 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 Day 3. “힘과 승리는 주님의 것”

---

### 납치와 휴전, 박해...

1940년대의 기독교박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부인하거나 남한으로  
이주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말 한반도 전체에 600,000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그중 75%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해 그 수는 약 30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남북을 갈라놓은 38선의 남쪽 진영으로 북한의 포격이  
울렸고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납치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매장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죽음을 택해야 했습니다. 대도시교회들은 북한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전  
기념예배를 실시하도록 강요 받았고 설교 중에 축하를 보이지 않는 목사들은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양욱이 주재하는 기독교인대회가 열렸고,  
대회에서는 한반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김일성의 공산국가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1950년 9월 UN군의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10월말에는 서울 뿐 아니라 평양도  
UN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각지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시의 탈환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평양은 다시 북한군으로 넘어갔고 UN군의  
승리를 축하하던 성도들은 처형당했습니다....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김일성은 이날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정하였습니다.

전쟁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약 1,200명의  
성도들이 전쟁 동안 순교했습니다. 그 중 30명은 예배당을 지키려다가 총살당했고, 500명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전쟁 전에 북한에 약 3000 개의 교회가 있었으나 상당수가 파괴되었고 남은 교회들은 학교나 주체사상 센터와 같은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출신성분 조사 - 주민분류와 박해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은 절대권력강화를 위해 크리스천들을 스파이와 반동분자들로 낙인찍어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분조사를 통해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하는데, 모든 크리스천은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적대계층은 죽임을 당하거나 모르는 곳으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출신성분은 대대로 세습됩니다. 전쟁 후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10 만에서 20 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 자료들도 북한에서 제거되었습니다.

### 북한을 위한 기도 -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엄격한 통제와 탄압 속에서 북한교회 지도자들은 지하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훗날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북한 지하교회를 불드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와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7)*

## Day 4.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

### 세계 최악의 박해자, 김일성 우상화의 주체사상

출신성분제 도입 후,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한 자기의 신격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인민이 단 하나의 포인트,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모든 충성을 바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되면서 이 10대원칙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금 이들을 우상화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학교 학생들은 이 3명의 신격화된 생애와 주체사상을 배웁니다. 모든 주민들이 매주 '생활총화'에 참여해 김일성의 가르침에 따른 자아비판을 하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김일성에게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도 김일성과 당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위장 교회

1960년대 말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분야에서 주체를 이룩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3대혁명 붉은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부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해당되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는데,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조건에 서명한 이들도 있고 거부하고 사면을 받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유화책으로 김일성은 1940년대 만들어졌던 '조선기독교연맹'을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공산당 선전도구 역할만 있었지만, 또한 그시기에 지하교회들도 재조직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 후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 냉전이 종식되고 동서화합이 시작되자 북한은 이듬해,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열고 177개국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전략으로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건축하고 빌리그래함과 같은 기독교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위장교회에는 당이 지명한 자들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교회 근처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책도 인쇄하여 교회 안에 전시했지만 아무도 성경을 밖으로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평양의 이 교회 주일예배 참석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더니 주일에 교회문이 닫혀 있더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객은 미리 참석 신청을 한 관광객 숫자만큼 빈자리를 준비해 놓았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 두 교회는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조금도 덜어주지 않았습니다.

### **고난의 행군이 순례자의 길로**

1990년 중반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가뭄과 홍수의 재난과 경제 위기로 배급이 끊어졌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국가적 대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의 수십만명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전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지하교회 네트워크를 재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온 기회였습니다. 중국에 양식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왔습니다. 식량과 돈 뿐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자료들을 옷 속에 감추어 왔습니다. 중국에서 성경공부를 한 사람들은 훈련된 교회지도자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 **아들과 손자에 의한 더 심한 박해**

2000년대 초, 대기근이 지나가자, 김정일은 중국국경을 강화하고 주변에 거대한 수용소를 세우고 하루에 약 4,000명씩 수감했습니다. 중국정부와 협약해서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국경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400,000 명의 탈북민들이 이렇게 복송되었다고 합니다. 송환된 이들은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남한 사람과 접촉했는가?", "남한 드라마를 보았는가?", "기독교와 접촉했는가?"

2011 년, 김정일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정권에 위험 요소가 되는 모든 것을 더욱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화된 통제는 결국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의 강화가 되었습니다.

### 북한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내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실은 나는 주님으로 둘러싸여 있어요."라고 누군가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북한성도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인내로 고난의 길을 가면 소망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하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5)*

## Day 5. 아직 여기에, 지하교회로,

*"비록 우리가 목자도 없고 우리도 없는 양떼 같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겨울 흑암의 폭풍 뒤에 죽은 나무 같이 보일지라도..."*

-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비밀편지 중에서

이것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4 대에 걸친 간증입니다. 이 흑암의 국가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1 세대 -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20 세기 초 북한 기독교인 1 세대입니다. 그는 1907 년 평양대부흥을 경험하였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성경학교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머물렀고 그는 신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 뛰어난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교회 건물들을 건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짓는데 헌신하고 앞장서서 1910 년 경 땅을 매입하고 교회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교회로 분립하였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교회 반주자 레베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 지역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아브라함과 협력하여 1930년대까지 계속해서 여러 교회들을 더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 선교사들과도 협력하여 그 지역에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K 목사가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 2 세대 –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려서부터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목사로 훈련받고, 또한 후에 신학자가 되어 평양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버지가 세운 신학교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를 피해, K 목사는 교인 일부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K 목사가 떠난 후,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에게 교회에 남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휴전이 되면서, 북한 정권은 1954년, 광범위한 교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돌보던 지역의 교회들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양떼를 데리고 평양으로 가서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 당시에 평양에서는 교회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부터 평양에서도 교회에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삭 목사는 평양 전역에 가정교회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십 번의 설교를 하였고, 성도들은 가정집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 마당에 서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1958년,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거 박해의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이삭 목사는 결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삭 목사는 체포되어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탄광 일을 해야 했습니다.

## 세상 정부에 버림받았으나, 천국의 시민으로.

1959년 북한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생겨났습니다. 북한정권에 알려져 단속에 걸린 크리스천들과, 숨어들어간 비밀 크리스천들입니다.

북한 정권은 1945년 이전과 한국전쟁 직후에는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1958년 이전에 확인된 기독교인들을 시골과 탄광으로 추방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들을 감시하고 박했습니다. 추방된 곳에서 크리스천 한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종신형을 살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복음의 증인들로 남았습니다.

1958 년 이후에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되어 돌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찾아낼 수 없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시망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박해를 피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목사는, 추방된 곳에서도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탄광에 있던 다른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교하는 목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삭 목사는 일어나서 아들 야곱을 데리고 여러 가정교회들을 돌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아들 야곱이 밖에서 망을 보며 아버지가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박해가 증가하며, 예수의 제자들도 증가하다**

북한정권은 탄광으로 추방된 크리스천들이 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평신도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북한정권은 지도자들을 다른 광산으로 옮겼습니다. 더 험악하고 살기 힘든 산간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출신성분 검사에 의해, 북한정권은 대상자들을, 단순히 재교육이 아닌 발본색원을 위해, 탄광으로 강제이주 시켰습니다. 이 지역은 기독교지도자들, 엔지니어들, 일제시대 정치가들, 남한 군대 장교들이 주로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광산은 가스 폭발이 빈번하고, 탄광이 무너져 갱도에 있던 이들이 모두 질식사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이삭 목사는, 추방된 여러 지역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빈번한 사고로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그 탄광에서도 복음은 왕성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이삭 목사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970 년대의 어느날, 수용소 보위부원들이 이삭 목사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상당한 양의 성경책과 신학서적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삭 목사와 가족들에게 그 책들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고, 그 위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여 책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 후 이삭 목사는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 숨질 때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 **3 세대 - 야곱 이야기**

야곱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악질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일반 성도들로부터도 분리시켜졌습니다. 야곱은 재교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악질 반동분자'들은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조부와 부친이 악질 기독교인으로 처형당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야곱도 어려서부터 교회 성가대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집이 수색을 당하던 날, 어린 야곱은 수용소 보위부원들의 감시하에 마당으로 성경책들을 내놓는 과정에서 한 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떨어진 그 책을 재빨리 툇마루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후에, 야곱은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성경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의 표지를 벗겨내고 비밀 장소에 숨겨두고 매일 읽으려 암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삭 목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인 레베카 사모가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야곱은 전도자로 성장해갔습니다. 레베카와 야곱의 헌신을 통해, 지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감시와 억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에, 야곱 가족을 수십년간 감시해오던 한 당간부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각혈을 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굶어 죽었고, 아내와 딸은 어디론가 떠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의 집을 찾아가 그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병든 몸을 씻겨주고 죽을 먹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돌봄에 감동을 받은 그 당간부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귀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디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복음에 대해 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리고나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와 함께 그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주간도 살 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당간부는 야곱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6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당에, 수십년간 야곱을 감시해왔지만 아무런 범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와 딸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당간부도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공산당원 자격을 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거부되자, 이상히 여겨서 야곱의 출신성분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그가 ‘악질 반동분자’로 분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야곱이 자기의 부친과 조부가 모두 악질 기독교인으로 공산당에게 처형당했는데도 공산당 간부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보아준 것이 이상했습니다. 자기를 수십년간 감시하도록 보내진

공산당 간부를 씻기고 먹이고 간호해준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야곱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에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가 궁금했고, 결국 야곱에게 복음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 4 세대 – 조셉 이야기

조셉은 야곱의 친 자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입니다. 야곱은 1990 년 경에 조셉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셉은 그것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야곱 또한 자기에게 그것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자기 손에 맡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야곱의 헌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1990 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식량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시기 동안에도, 지하 교인들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행 20:24) 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 자기들의 음식을 나누어주었고, 또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돼지를 도살할 경우 당에 바쳐야 한다는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야곱이 돼지껍데기를 요리하여 숲속에 있는 성도의 집에 가져다 주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그 가족은 바닥에 누워있었고 너무 약해져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돼지 껍데기를 잘라 솥에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온 적은 양의 음식들을 가지고 그 가족을 돌보고, 일주일 정도 그 가족이 기력을 회복한 후에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조셉은 지하교회에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신앙이 보위부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다른 지하교인들 이름을 대라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교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차라리 자기 혼자 죽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조셉은 풀려났으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그의 가족은 산간지대로 추방되었습니다. 거기서 조셉은 박해받는 성도들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조셉은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전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셉은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남겨 놓으신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 세계 최악의 박해 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 년간, 북한은, 전세계 크리스천 박해지수 순위를 보여주는 오픈도어 '월드와치리포트'에서 최악의 박해국가 1 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약 200,000 명에서 400,000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추산되는데, 그 중 약 50,000~100,000 명은 수용소에 투옥되었거나 외딴 산간지대로 추방당했고, 나머지 성도들은 완전히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4 대에 이르는 성도 이야기에서 보듯이,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기독교는 하나의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발각되면 극한 처벌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박해받는 그들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추방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위해서, 그들이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탈북할 수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자신을 훈련하고 북한의 문의 열리는 날을 위해 준비하며, 또한 북한복음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북한 성도들을 위한 오픈도어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프로젝트들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계 3:2) 하는데 쓰임받도록 기도해주세요.

## Day 6. 하나님이 북한 내지 문을 여시다

---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9)*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 3:8)*

### "북한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픈도어 북한사역의 시작

신실한 크리스천인 피터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알 수 없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중국 깊숙이 들어가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믿는 이들 그룹을 발견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할머니 성도가 작은 성경책 20 권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피터는 그것이 이상한

요청으로 생각되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피터는 작은 성경책들을 가지고 같은 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성경책들을 받자, 그 할머니 성도는 또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성경책을 더 갖다 주세요. 우리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찬송가책도 가능할까요?” 할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피터는 다시 몇 달 후에 작은 성경책들과 찬송가책들을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성경전달은 몇 달째,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한 요구를 채우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정을 기적적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피터는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감사의 비밀편지를 받고서야 자신이 세계 최악의 억압 국가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고난의 행군 동안에, 성경뿐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 전달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픈도어 북한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세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오픈도어는 식량, 의약품, 후원금, 기독교 서적 및 자료들과 같은 도움으로 북한의 성도들을 돕고 북한의 교회가 굳건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로부터 온 비밀편지는 그동안 전달된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전달된 기독교 자료들은 제때에 안전하게 성도들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을 바치리라는 각오와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명심합니다. 우리는 우리 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후원과 지혜로운 인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력한 믿음과 사랑으로, 영적전쟁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고생하고 있는 소박한 성도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때 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승리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백 배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과 여러 모든 후원자님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전달품들이 여러 검문소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시골과 깊은 산간오지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성공적으로 이 물품들이 전달되기를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도록, 예수의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 준비된 영혼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전달된 물품들을 마을 안에서 나누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힘든 시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도록 기도해주세요.

## 전파를 통한 전도와 제자훈련 - 라디오 사역

라디오 사역은 북한 내외 지리적 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핵심 사역분야 중 하나입니다. 라디오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한 여러 크리스천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성도들이 성경공부, 기도, 찬송, 성경적 생활가이드 등으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북한 성도들은 방송 패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역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며, 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비밀리에 메시지를 보내 자기들이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감사 드립니다. 전파수신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보통은 문제 없이 잘 들립니다...한번은, 방송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나온 후에, 한 외국인 성도가 보낸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감사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북한 성도들의 삶이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과 같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작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는 시나리오들을 쓰도록, 스태프와 패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와 말을 통해 그러한 친밀함이 전달되기를, PD 들이 북한의 귀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라디오 방송국과, 라디오 주파수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비밀리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시편 32:7) - 안전가옥과 은신처

한 탈북자 분은 말합니다, “나는 북한을 탈출한 후에 중국의 한 안전가옥에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 안전가옥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중국 현지 크리스천들과 함께, 오픈도어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위한 안전가옥들을 운영합니다. 현지 파트너는 먼저 탈북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성경에 대해 더 배우려고 하는 관심이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되면 다시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와 함께 비밀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탈북자는 교육을 받습니다. 만일 그가 더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 이틀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공부를 합니다. 요구에 따라, 더 심화된 신앙교재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민수는, 지금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인데, 중국으로 탈북한 뒤 오픈도어 안전가옥에 머무는 동안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첫째로는, 제가 처음 안전가옥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의문들이 있었지만, 우선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가옥에 들어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이순간도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우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남한 사역단체들에서 일하는 수백명의 탈북자들 중 많은 수가 이런 안전가옥들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둘러보니, 이 사람들이 통일 후에 북한 교회의 지도자들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안전가옥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가옥과 은신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전가옥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과, 현장 사역자들, 현지 파트너들 위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현장사역들로 하여금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때 무슨 말을 해야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탈북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이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 탈북자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팔이 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러시아에서도 사역기회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안전가옥 안에서 북한 출신의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만납니다. 러시아에서 이들 북한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북한에서 오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이 담대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 인신매매 당한 탈북여성 성경공부**

중국의 깊은 숲속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여성들을 위한 비밀 성경공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자매들은 식사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 중 일부는 여름과 겨울에 있는 집중 성경공부 시간에 참가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전세계 크리스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세례를 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많은 경우,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온 탈북 여성들은 식량과, 일자리와 때로는 자유를 찾아서 탈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법 브로커들에게 속아 외딴 시골 오지에 사는 중국인 남편에게로 팔려갑니다. 이 탈북여성들이 중국어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도 적응하려면 어려움이 겹칩니다. 대개 이들이 팔려가는 가정은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큰 고통을 겪은 이 탈북여성들에게 그러한 일은 너무 가혹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또 다른 기회를 찾아 그 중국 가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또한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 중 한 여성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옥 같은 곳에 버려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천사 같은 선생님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200 명이 넘는 탈북여성들이 예수님께로, 또 성경공부 모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매들 중 100 여 명이 지속적인 성경공부와 정기적인 교제를 통하여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이 탈북 자매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탈북여성 성경공부 모임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던 오픈도어 사역자 한 분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함께 이같이 기도합시다 : “이 자매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하루하루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매일 매일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분들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일용할 양식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공부 모임을 보호해주사 위험한 고발을 당하거나 발각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자매님들을 축복하사 이들이 사랑과 지혜로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그 가족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매님들의 조국인 북한을 축복해주옵소서 북한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2020 년, 북한과 북한의 성도들은 유례없는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발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폐쇄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거의 모든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모든 공식 모임들과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봄에는 기근이 찾아왔지만, 국경 폐쇄로 인해 물자의 반입이 줄어들어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지하교회 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픈도어 프로젝트들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 속에 지하교회 교인들도 비밀예배를 전보다 더 작은 소그룹으로 쪼개서 드리거나 아예 혼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 3:17-19)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들이 이 혹독한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느 8:10)"는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통로들을 여셔서 북한의 성도들이 전세계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가는 후원금과 물품들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사역을 위한 힘을 주시기를, 모든 프로젝트와 계획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Day 7.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신부, 그녀가 어린양과 결혼할 것이라. 그날까지, 나는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나이다."*  
- 찬양곡 "새 예루살렘" 중에서

###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라

평양대부흥부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 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고전 13:7)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방된 지역의 한 지하교회 성도는 이를 증거해 줍니다. '믿음' 씨와 그 가족은 집에 있는 성경책이 보위부에 발각되어 오지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이 그곳에서 먹을만한 식물을 찾아서 아사를 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견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찾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지역에 크리스천 서클이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믿음 씨 가족의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보위부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어, 보위부원들은 이 가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씨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서 믿게 된 이들을 돌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믿음 씨 가족은 어느 날 기적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사역자에게 연결되었고, 지금 우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씨는 언니에게 쓴 편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삼촌으로 언급하고, 정부는 호랑이로, 성도들은 토끼로, 기도는 돌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퀴즈를 달리기로 표현했고, 오답은 땅에 넘어지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래 편지를 소개합니다 :

꿈 속에서라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언니,

시간이 바람 같이 흘러 가네요. 벌써 연말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녀들은 다 잘 있지요? 가족은 어떠세요? 건강하신가요? 저는 언니에 대해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고 언니가 너무도 보고 싶네요.

언니의 기도와 도움으로, 그리고 삼촌의 은혜로, 우리는 잘 있어요. 지금은 숲에서 식물을 거두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재난들이 우리를 피해간 것 같아요. 이곳으로 추방되어 왔지만, 삼촌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조금이지만 남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제때에 비가 내리고 해가 비취며, 우리 또한 삼촌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언니는 항상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삼촌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이 말을 여러 번 해주셨잖아요. 이제 나도 그 뜻을 이해해요. 말씀으로 사는 거 같아요.

이제 나는 하늘 아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 생각하니 마음도 훨씬 자유로워요. 밤마다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사랑하는 언니가 생각나요. 언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게 느껴져요. 언니 친구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격려해주던 게 기억나요. 그 친구분은 자기도 그리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일도 도와주셨지요. 그 친구 분은 가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또, 내가 받기만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언니는 내 언니이지만, 어떻게 이 모든 걸 내가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넘치는 사랑과 관대한 베품에 대해 그저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언니가 기뻐하는 거, 삼촌도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정말 기적이지요. 단지 우리 걱정은 호랑이들이 계속해서 토끼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지요. 호랑이들이 토끼들을 다치게 할까 걱정이 되요. 큰 스트레스를 주지요. 그러나 말하건대,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환난은 삼촌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기 가족들이 달리기 대회를 하려고 모였어요. 가장 빠른 사람은 상으로 우리가 준비한 식량 바구니를 받는 거예요. 마태가 1등을 해서 바구니 3개를 받았고, 마가는 2등을 해서 바구니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3등을 해서 우리 가족도 바구니 하나 받았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촌의 편지를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어요. 달리다가 사람들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크게 웃었어요. 아주 재미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잊혀진 외딴 곳에 사는데, 세상 누구와도 떨어져서 살지만, 서로 돕고 진짜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서러워하지 않지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도 안나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서 어떻게 잘 꾸려가고 있어요.

이게 다 삼촌의 은혜요 은혜로운 사람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삼촌의 넘치는 사랑, 기쁜 마음. 우리는 이것 세상 어떤 것과도 안 바꿀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 맘을 바꿀 수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에요.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삼촌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끼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버려진 삶이고, 죄받은 땅에서 산다고 말하겠지만, 사람들은 여기가 축복받은 땅인 줄은 모를 거예요. 나는 언니가 한 말을 믿어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이에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이 모든 일을 잘 해주실 줄 알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런 격려의 말이 진실인걸 믿어요.

우리 삼촌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보호자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출애굽 책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이요. 이 땅에 있는 이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고 문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의 부르심은 자녀들이 삼촌에 대해 공부하도록 돕고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의 부르심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어 기아를 극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은 정말 마지못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남편은 변했어요. 아주 좋아서 하고 있답니다! 나는 삼촌의 이름으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마치 삼촌 책에 있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된 것처럼

이요. 언니 도움을 받을 때마다, 나는 언니가 삼촌이 보낸 이 시대의 요셉처럼 느껴져요.  
나 또한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몇 가지 요청들:

1) 기도할 때마다, 호랑이에게 붙잡혀서 짹소리도 못 내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토끼들에 대해 삼촌께 말씀드려 주세요.

2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실 때, 십일조는 떼시고 나머지만 주세요. 물론 여기서는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삼촌이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고 믿어요.

3) 부디 선물과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 바깥의 친절한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주세요.

4) 무엇보다도, 늘 건강하세요.

하고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언니, 모든 언니 가족 다 늘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요. 부디 몸조심하세요.

사랑하는 동생이.

추신. 보내주신 것 다 잘 받았어요.

##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 씨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억해주시고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처럼, 오픈도어 북한사역을 시작한 피터 씨도 똑 같은 증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열렬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려는 그러한 끔찍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는 결코 지옥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성경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고 정금 같이 만드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거인들로 자라나서, 거룩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성도들을 언젠가는 불러내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전세계의 다른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견고히 서서 세계선교에 헌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피터 씨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선교의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줄 압니다.”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북한의 성도들을 섬기는 한 오픈도어 사역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 개인송배가 무너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 전역에서 일어나서 북한이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또 다른 현장 사역자는 선포합니다: “북한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대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자유롭게 신앙과 간증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한숨을 기억하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압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사탄의 세력이 점점 더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삶과 죽음 가운데 지켜온 견고한 믿음과 함께,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본보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북한의 영적인 영웅들의 간증들이 세상에 드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 불을 붙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피터 씨와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의 간증을 천천히 다시 읽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오픈도어 사역자들에게 북한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똑 같은 꿈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 11:1) 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북한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오기를 열렬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